3-3-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1-10
말씀 제목: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

첫 사람의 죄로 인해 온 세상에 처해진 저주와 사망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여인으로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기 1,500 년 전에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마다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부터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물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율법 시대에 희생 제물의 피로는 육체만 정결케 하는 것이므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히 9:13)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히 9:14).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요 1:29).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큰 은혜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히 10:10)**

그렇습니다! 이천 년 전에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자신의 피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 혼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9) 몸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흘리고 죽었던 한 편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피로 그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심으로써 그의 혼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그가 하늘에 앉으신 것은 그가 한 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히 10:12-14)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영원한 구속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히 9:12-15)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혼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살전 5:15-24)

예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실 때, 자신을 믿은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구원받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들 모두의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드리셨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요 17:5-11, 17, 20-21)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정결한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26-27)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은 혼이 정결케 됨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벧전 1:22)

아멘! 할렐루야!